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3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에서 이달순(왼쪽부터) 수원대 명예교수, 김문순 최은희여기자상 운영위원장, 윤호미 심사위원장, 수상자인 박진현 광주일보 문화선임기자,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서청원 추계 최은희 문화사업회장,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박진현 부국장 최은희여기자상 수상

문화품격 향상 공로 ... 33년만에 호남 첫 영예

‘박진현의 문화카페’ 문화인 필독 칼럼 자리매김

광주일보 박진현(52) 편집국 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의 제33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이 1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최은희여기자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추계 최은희 문화사업회와 방일영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최은희여기자상은 당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여기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박 문화선임기자의 수상은 호남지역 최초의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시상식장에는 고 최은희 기자 장남인 이달순 수원대 명예교수, 김문순 최은

희여기자상 운영위원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서청원(새누리당 국회의원) 추계 최은희 문화사업회장,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문순 최은희여기자상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은희여기자상은 금녀의 벽을 허물었던 진취적인 기상이 녹아있다”며 “올해 수상자인 박진현 문화선임기자는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역 문화지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국기배례, 심사위원 및 내빈 소개, 심사경위 보고, 시상, 축하, 수

상 소감 등으로 진행됐다. 수상자의 소속사 대표가 축하를 하는 관례에 따라 축하에 나선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지역 문화계의 이슈를 택해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때로는 부드러운 충고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박진현의 문화카페’는 문화인들의 필독 칼럼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름을 내걸고 문화 분야만을 다루는 고정 칼럼을 내보내는 것은 호남지역 신문에서는 전무후무한 데다 전국에서도 드문 일”이라고 치하했다.

박 문화선임기자는 수상소감에서 “최은희여기자상은 여기자라면 한번쯤 꿈꾸는 영예로운 상이지만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제가 넘보기에는 거대한 산이라 생각했다”

면서 “광주일보의 사시 가운데 하나가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인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지형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보탬이 되는 글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문화선임기자는 1987년 광주일보에 입사해 문화생활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2012년부터 편집국 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문화 이슈를 다룬 칼럼 ‘박진현의 문화카페’를 연재해오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과 문화행정에 대한 생생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선진미술관에서 배운다’ 등 기획시리즈를 연재해 호평을 받았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10일 열린 제33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에서 김문순 최은희여기자상 운영위원장이 박진현 광주일보 문화선임기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추계’ 선생 뜻 기려 1984년 제정 ... 상금 1000만원

■ 최은희여기자상은

‘최은희여기자상’은 근대 한국 격동기에 여성 언론인이자 항일운동가로서 명성을 떨친 추계(秋溪) 최은희 여사(1904~1984)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4년 제정됐다. 상금 1000만원.

올해까지 33년간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여기자는 모두 36명으로, 1980년대 이후 한국 언론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여성 언론인들의 성취가 그대로 녹아 있는 상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큰 발자취를 남긴 추계 최은희 여사가 기

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1984년 제정됐으며 매년 1명의 여기자를 선정, 시상한다.

그동안 최은희여기자상은 신동식(서울신문 1984), 장명수(한국일보 1985), 박근욱(중앙일보 1987), 이진숙(MBC 1994), 임영숙(서울신문 1995), 최성자(한국일보 1996), 강인선(조선일보 2004), 강경희(조선일보 2015) 기자 등이 수상했다.

조선일보사는 추계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84년부터 ‘최은희여기자상’의 관리와 운영을 맡아 그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여기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시상식 축하해 주신 분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이종덕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전 세종문화회관 대표)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방선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장 ▲김운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정동은 광주시 국제관계대사 ▲김대영 주한미국대사관 전문위원 ▲전승보 수원시립미술관장 ▲강수미 동덕여

대 교수 ▲강태웅 중앙대 미대 교수 ▲조강훈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공훈의 ㈜소셜뉴스 위키트리 대표이사 ▲이상기 아시아&저널리스트 발행인(전 한국기자협회장) ▲정현채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이준박 전 광주일보 논설위원 ▲이요숙 송은갤러리 관장 ▲문기전 광주시 청소년센터 소장 ▲장주현 서예가 ▲강운 서영화가 ▲이매리 서양화가 ▲전광미 광주비엔날레재단 홍보사업부장 ▲배미경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조선대 부속중서 故 김부열 열사 추모비 제막식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교장 곽효석)는 10일 오전 고(故) 김부열 열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를 갖고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종식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18 유가족회 회장, 재학생들이 참석해 김 열사의 술포고 회생정신을 기렸다.

김 열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집을 나간 이후 행방불명됐으며, 이후 23일과 24일 사이 주남마을 야산에 매복한 군인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의 총에 사살되었다는 사실이 20사단 군인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5·18 학생 희생자 추모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김 열사의 추모식에서 장휘국 시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향



광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독재에 저항한 것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추모식 이후 학생들은 국립 5·18 민주

묘지로 이동해 김 열사의 묘역(묘역번호 2-29)을 찾아 참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총동창회, 20대 국회의원 당선 동문 초청 축하연



전남대총동창회(회장 노동일)는 지난 9일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의 총선거에서 당선된 동문들을 초청, 축하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문 총장과 국회의원 당선인 등 250여명이 참석해 당선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전남대는 지난 4·13 총선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광주 관산을)·이개호(더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화영(더민주, 경기 군포)·정양석 (새누리, 서울 강북을)·정인화(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최도자(국민의당, 비례) 당선인을 비롯해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최고관리자 과정수료자를 포함 1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이세돌 백십배 5번째 우승

홍진기 창조인상 상금 기부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세기의 대국’을 펼친 뒤 7전7승 무패행진을 기록, 맥스커피매에서 우승했다.

10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이 9단은 이날 제17기 맥스커피매 입신최강전 결승 3번기 제2국에서 원정진 9단에게 흑 불계승을 거두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 대회에서만 5번째이자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이 9단은 앞서 지난 9일 알파고 대결을 펼친 전 세계에 인간의 집념과 창조적 발상을 보여준 공로로 제7회 ‘홍진기 창조인상’(사회발전부문)을 수상했으며, 상금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양원모(순천대 교수)·안순옥씨 장남 희도군 김영두·강만익씨 장녀 주유양=14일(토)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예식홀, 전세버스 출발=당일 오전 7시 순천대 정문, 오전 8시 광주문화예술회관 후문 경유. 문의 010-2994-5045.

▲이정·이숙호씨 차남 동욱군 이용기(전 함평군 주민생활지원과장)·함선미씨 장녀 보나양=14일(토)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1동 성당.

▲김광호·이수자씨 장남 영규군 이락도(남구노인복지관 주임)·강순자씨 삼녀 미정양=14일(토) 오전 11시5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힐리테이인 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한영봉(전주시청)·곽향숙(무등어린이집)씨 차남 인택(한국수력원자력)군 허을석(전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장)·이문자씨 장녀 승희(화순초)양=21일(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몰.

동창회

▲광주송일고 총동창회(회장 박철홍) ‘송일추억 그리고 어울림’ 동문의 날=14일(토) 오전 10시30분 광주송일고 체육관.

▲전주시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청년 이화월례회=17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전남불교신도회원=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

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광주생명명의전화 한마음가정폭력상담소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 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233-919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할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동 010-9092-0343.

▲안전모니터봉사단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남구 방림1동 새마을 협의회원=자원봉사자 남자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수시 회원 모집, 광주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부음

▲정옥단씨 별세 노광일·명일·복일·오

謹

삼가 故 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 정덕순 님(여/77세)

子/子婦 : 박상철/김사리, 상도/박지연

女/婿 : 박현주/배영준

孫 : 박비오/소영, 배상효/은호

발 인 : 5월 12일

장 지 : 효천묘역

연락처 : 227-4381

402호 故 정미순 님(여/82세)

子/子婦 : 고영순/김남영, 영식/정순란

女/婿 : 고영환/김명준

발 인 : 5월 11일

장 지 : 화순 용면선영

연락처 : 227-4314

401호 故 문금순 님(여/88세)

子/子婦 : 선영복/이영주, 영선/문보경, 영구/곽원미, 영훈/노경미, 김현조/김영조

발 인 : 5월 11일

장 지 : 보성 회천선영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 양평숙 님(여/57세)

子 : 정희승/최준

女 : 정희은

大君 : 정조

발 인 : 5월 11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 주진명 님(남/73세)

子/子婦 : 주민석/박경희, 민호/김경희

女/婿 : 주진경/김명기

발 인 : 5월 11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5

孝 金호 장례식장

마음까지 편한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